

에스컴시티프로젝트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기억·지도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을 진행하면서 도시를 기억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만났다. 도시를 기억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통해 부평·신촌의 지난 시간을 상상하며 이 곳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변화해왔는지 되짚어 보았다.

부평·신촌은 부평구 전체의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를 지닌 곳이다. 너른 평야였던 땅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육군조병창이 되면서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新) 마을(村)로 조성되었고 해방 직후 1945년 주한미육군병참본부인 에스컴(ASCOM)이 들어서며 기지촌화 된다. 1973년 공식적으로 에스컴이 해체되고 부평·신촌은 부평수출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채워졌고, 같은 해 현 부평공원 자리에 주둔했던 한국군 88정비부대가 철수한 다음에야 서서히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른 것이다.

도시는 역사적인 부침 속에서 시대에 따른 변화를 겪어 왔고 땅의 쓰임에 따라 도시민들의 삶의 형태도 결정되어 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남아 있는 것은 그곳에서 삶을 꾸려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의 기억일 것이다. 2019 에스컴시티프로젝트의 네 번째 아카이브 프로젝트에서는 부평·신촌에 대한 기록들과 지난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시민들의 기억을 활용하여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도를 제작한다.

군수공장과 기지촌, 노동자들의 삶이 담긴 부평·신촌의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도 부지런히 삶을 일구는 부평 사람들의 존재이다. 이 지도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의 과거와 땅의 기억을 드러내고 동시에 도시의 현재를 담아 변천사를 살핌으로써 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기억·지도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재단

MUSICITY

2019 에스컴시티프로젝트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기억·지도

기획

고경표

협력기획

권효진

디자인

김규호

사업총괄

최정환(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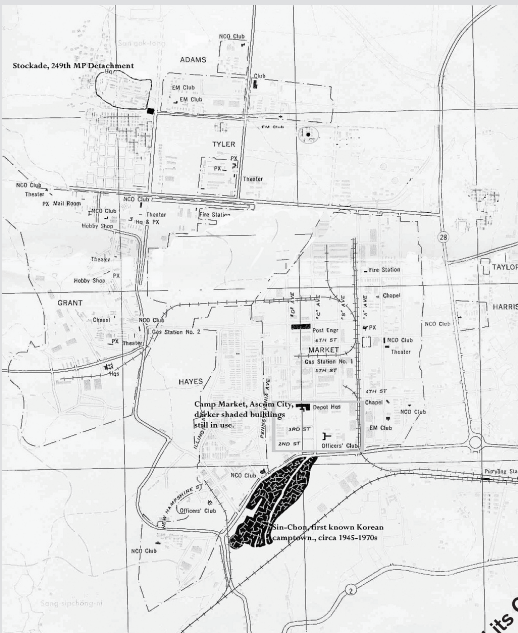
부평구문화재단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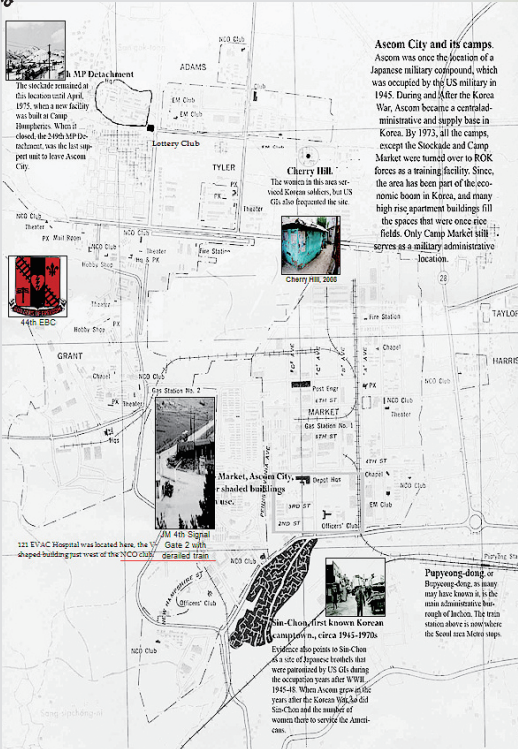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팀

032-500-2044 www.bpcf.or.kr

‘에스컴시티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부평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을 위해 1950~1970년대 주한미군지원사령부(ASCOM: Army Service Command)의 주둔을 기점으로 부평신촌(현재 부평3동)일대에서 운영되었던 음악클럽들과 당시의 음악, 음악인들의 역사를 찾고 그 속에서 생활해온 부평신촌 원주민들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ASCOM CITY and its Camp market



도시개괄

부평·신촌

신촌新村은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으로 시민들이 불러 온 인식적인 지명이다. 본래 경인철도 옆 원통천 서쪽 불모지였으나 일제조병창 및 히로나카(弘中)공장 조성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살면서 점차 마을이 되었다. 현 백운역을 중심으로 신촌로, 경인로, 원통로로 관통되고 부평공원과 굴포천지류 복개지역, 주민 거주지가 밀집된 혼합지역이다.

법정동: 부평동, 산곡동, 신정동
신촌의 범위: 부평 1~7동
면적: 1.00㎢
인구: 14,292명(남: 7,141 여: 7,151)
세대수: 6,693명 (2019)

신촌은 일본육군조병창과 미군기지 에스컴을 거치면서 기지촌으로 변화했고 그 역사는 1973년 에스컴의 공식 해체시까지 지속되었다. 신촌을 중심으로 ‘백마장’, ‘상릉’, ‘관동조’, ‘다다구미’에도 기지촌이 형성되었는데, 각각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 신촌의 중심거리에는 미군 클럽과 상점들이 즐비했고 그 뒤쪽으로 ‘미군 위안부’들의 주거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에스컴과 부평신촌 사람들

신촌 주민들은 에스컴에서 하역작업, 차량정비 등의 군사업무와 취사, 이발, 세탁 등 생활 업종에 종사했다. 그 밖에 노무자, 미장공, 정비공, 배관공 등 기능직과 비서, 서기, 은행출납원 등 사무직도 있었다. 미군부대에서 미군용역회사나 하청업체를 두고 관련 업종이나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도 있었다.

부평조병창 ↔ 제24군수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mand24):

· 에스컴(ASCOM24), 캠프마켓

· 범위 부평1동 동아대림옥일아파트 자리

· 산곡3동, 4동의 미군부대, 현대우성·동남·삼일아파트 지역

· 화랑농장

1945년 일본육군조병창 자리에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들어섰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철수했다가 1951년 재주둔했다. 면적은 약 52만8000㎡(약16만 평)으로 병참기지화 121후송병원을 포함하며 1963년 55보급창·6의무보급창, 565공병자재창·19병기창, 4통신대, 512정비대대, 55항공대, 8057보충대, 37공병대·76공병대 등 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950년대에는 이 7개의 구역을 ‘쿼터마스터 시티(Quartermaster City)’로 불렀고 1963년부터 ‘캠프 그란트(Camp Grant)’ 등으로 바뀐다. 부평 주민들은 ‘8057부대’와 ‘55 부대’로 통칭했다. 이중 55 부대가 현 캠프마켓 부지를 중심으로 위치한 부대였다.

· 부평조병창 ↔ 미 제38보충대 ↔ 부영공원

· 일본육군부평연습장(1920) ↔ 산곡동 일대

부평조병창 ↔ 미 제8057부대 ↔ 제9공수특전여단 ↔ 부평현대1단지아파트

건설부는 1978년 산곡동 310 일원 12만5천㎡를 아파트지구로 결정했고 인천시는 1984년 33만 7천30㎡로 확대 지정고시하여 1985년 이후 ‘산곡지구’현대아파트가 조성되었다.

부평조병창 ↔ 212후송병원 ↔ 544진료소 ↔ 현대백화점부평점 ↔ 2001아울렛

히로나카(弘中商工)공장 ↔ 상인천제작소(미초비시三陵忠公館) ↔ 한국육군88정비대 ↔ 부평공원
1939년 히로나카 상공이 공장을 완공하였고 1941년 총검공장과 견습공연습공장을 신축하여 1942년 미초비시 중공업이 매입한 다음 상인천제작소로 이름을 바꿔 운영했다. 광복 이후 한국육군88정비대가 주둔했다가 1995년 철수했고 2002년 부평공원이 되었다.

부평·신촌의 시작과 변천

“부평 평야가 일대 공장지구로 되어 정래인구 50만 명을 포용할 대공도로 화하게 된다 함은 세상이 다 아는 바임으로 개론할 여지도 없거니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홍중공장에 수용될 종업원이 1천 5백여 명을 생하고 있으며 국산자동차공장도 금년 9월경부터 공장 건설에 착공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여 이 역종업원 1만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는 바 그 공사가 3년 이내로 완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본다면 전기 양공장의 건설만으로도 종업원과 그 가족과 이에 따르는 각종 상인을 총합해서 인구 78 만 명을 돌파할 것이며 3년 후면 부평평야도 일대공업도시로서 면목이 약어할 것이라고 한다.” 『매일신보』, 1939. 8. 12.



일제 패망 전까지 군수물자와 관련된 금속, 기계공업이 발달했다. 1945년 이후 대부분 공장이 운영을 멈췄고 1950년대 말 남아있던 곳들도 문을 닫는다. 그 자리에 에스컴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는 미군부대와 관계된 일자리에 의존하게 된다. 최신 미군 시설들은 경외의 대상이었고 에스컴 데포(ASCOM DEPOT)의 물자들과 미군 관련 사업은 지역 활성화의 원천이 된다.



1967년 부평신촌 위성사진

‘한국에 복무하는 거의 모든 미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어왔던 에스컴의 폐쇄는 진정한 역사적인 사건’ Press Release on Phaseout of Ascom, 1973.
미군 경제 중심의 군사도시에서 산업, 상업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맞는다. 부평공업단지는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부상하고, 미군이 떠난 자리에 유입된 근로자들은 새로운 소비 주체가 되었다.



2000년 부평신촌 위성사진

한국군 철수 이후 원통천이 복개되고 재개발이 진행된다. 1호선 백운역 개통을 앞두고 1983년 제 9공수특전여단이 철수한 자리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1984년 산곡동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 개발로 인해 대로변에 상가가 생겨나고 개천과 마을길을 따라 빌라가 들어선다. 원통천 복개가 마무리 되고 부평공원이 생기면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선다.

신촌중앙길 ↔ 백운동길·신촌로

신촌로의 이름은 1974년 5월 10일 정해졌다. 60~70년대 신촌 주민들이 사용했던 주도로로 처음에는 굴다리오거리에서 부평역을 지나 부평삼거리까지를 말했다. 현재는 바로크양기와 진선자동차공업사 사이에서 시작하여 신촌성결교회·부안고까지이다.

원통천(개천, 굴포천) ↔ 부평공원으로

원형은 조선시대 굴포(掘浦)로 부평구 청천동에서 시작되는 굴포천의 지류이다.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까지 이어지는 15.31km의 지방하천으로 부평신촌을 따라 흐르는 구간은 복개되어 현재 부평공원로가 되었다.

상릉三陵

히로나카 상공이 근로자들을 위해 사택을 조성한 지역이다. 1960~70년대 활동한 한국밴드들이 공연할 미군영내클럽을 지정해주는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인들이 많이 거주했다. 미군과 계약 동거하는 ‘미군 위안부’들이 많이 살았고 미군 PX의 물건들이 거래되는 ‘양키시장’이 활발했다.

신촌교(1980) ↔ 부평공원로 초입

원통천 복개 전 미군부대와 신촌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 있었고 1980년에 정비하여 ‘신촌교’라고 하였다. 현재 복개공사로 인해 표지석만 남아있지만 도로 입구 상점에서 가려놓았다.

관동조(關東組)와 다다구미[多田組]

명칭은 일제강점기 조병창 확장 공사에 참여했던 토목회사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관동주’라고도 불리며 산곡2동 주민센터 인근 낮은 언덕 위에 있었다. ‘다다구미’는 북인천우체국 인근이며 한국인들을 주로 상대한 지역이었다.

부평신촌 기억지도 일러두기

- 이 지도는 부평·신촌 시민들의 구술사를 토대로 찾은 기억의 장소와 2019년 현재의 주요 장소들을 함께 표기한다.
- 과거의 장소는 시민구술사와 사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시했으며 건물 변화로 인해 오차가 있을 수 있다.
- 시대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장소는 왼쪽부터 과거-현재로 표기한다.
- 표기 범위는 경원대로와 부평공원 사이 부평공원로와 안남로 63번길, 신촌로, 마장로 72번길 을 따라 형성된 현재의 부평 3동이자 1960~1970년대 신촌을 중심으로 한다.

- 일본육군조병창 및 ASCOM 관련시설
- 부평신촌과 클럽 밀집지역
- 미쓰비시(삼릉) 관련 지역

- 일본육군조병창 및 미군관련시설
- 0 히로나카(弘中商工)공장-상인천제작소(미쓰비시三陵중공업)-한국육군88정비대-부평공원
 - 1 부평조병창-제24군수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mand24): 애스컴(ASCOM24), 캠프마켓
 - 1-1 Branch1 로퍼클럽(사병클럽)
 - 1-2 장교클럽(Officer CLUB)
 - 2 121후송병원-544진료소-현대백화점부평점-2001아울렛
 - 3 NCO CLUB(Non-commissioned office CLUB)
 - 4 부평조병창-미 제8057부대-제9공수특전여단(왕도개비부대)-부평현대1차아파트(1985)
 - 5 애스컴 1번 게이트(ASCOM 1 GATE)

- 신촌로
- 6 양복점, 사진관, 통변역가게-바로크악기
 - 7 빅토리샵(VICTORY SHOP)
 - 8 약국, 상점, 신촌여인숙-보살집-목공방
 - 9 상점-자수명장의 집
 - 10 풀잎공방
 - 11 제니공방
 - 12 창아트공방
 - 13 키클럽(KEY CLUB)-장순일음악연구소
 - 14 수정미장원-또와상회
 - 15 미제물건상점, 세탁소
 - 16 수도클럽-충남지업사, 전기철물
 - 17 현대자동차공업사
 - 18 신촌로를 따라 내려오는 부평동 284번지
 - 신촌2층집, 청파미용실
 - 권투선수 홍수환의 집
 - 차차차양행
 - 재생당약방
 - 수근약국
 - 김약국
 - 20세기약품점
 - 신애의원
 - 19 신촌목욕탕-포그니모델
 - 20 조병창사택-주차장
 - 21 부업방

- 22 만취반점-중화각
- 23 성 원선시오의 집(1966~1997)
- 24 부평신촌성결교회
- 25 보살집, 행운인테리어
- 26 보건당약방-진선자동차공업사
- 27 중한식당
- 28 통변역가게-효정기타교실
- 29 거주지
- 30 크라운클럽
- 31 부산홀-이화오토바이(대림혼다)
- 32 신촌골목
- 33 상점-아미화랑
- 34 당구장-다방
- 35 하늘공방
- 36 소울브라더클럽(SOUL BROTHER CLUB)-은혜한지
- 37 김치공장
- 38 인테리어, 미용실
- 39 뉴컨츄리클럽-갤럭시빌
- 40 삼정아트빌라
- 41 서가면옥
- 42 신흥공사
- 43 도시락집
- 44 광명석유(살림집)
- 45 상점-장판, 벽지(살림집)
- 46 지름길

- 부평공원로
- 47 신촌교(1980)-부평공원로
 - 48 백만가지
 - 49 61파크애비뉴(Park Avenue)
 - 50 원통천-부평공원로
 - 51 앙스
 - 52 엘스커피랩
 - 53 편의점, 한옥마을
 - 54 퍼즈(FUZZ)
 - 55 카페 득
 - 56 커피베이
 - 57 지름길
 - 58 장기두는 곳
 - 59 구제보물섬
 - 60 원통천-뽕맹이거리(포장마차거리)
 - 61 백운쌍굴

- 경원대로
- 62 홍콩홀-옷가게, 공방
 - 63 그린도어-추억이 담긴 풍경
 - 64 결혼상당소
 - 65 애스컴사진관
 - 66 빅토리 양복점
 - 67 아리랑클럽-동물병원, 개성손만두, 효정악기 등
 - 68 신장홀, 신일홀-안남로
 - 69 의류수선집
 - 70 손세차
 - 71 세븐(SEVEN)-한의원
 - 72 송도홀, 화이트로즈(White Rose)-경원대로 1270길
 - 73 드림보트홀(Dream boat)-부일정육식당
 - 74 서브달러-한의원
 - 75 맘보클럽-내과의원
 - 76 편의점
 - 77 생활용품철물
 - 78 평양홀-살림집
 - 79 세탁소
 - 80 신세계-커피점
 - 81 세탁소, 네일샵
 - 82 옛날수제비칼국수
 - 83 생선구이집
 - 84 부평3동 경로당
 - 85 옛날수제비
 - 86 백운파출소
 - 87 부평3동행정복지센터
 - 88 뽕맹거리